

업계소식

건단련, 2008년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왼쪽 첫 번째)은 지난 1월 7일 개최한 건단련 2008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관계 인사 및 건설관련 인사들과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졌다.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1월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김성진 조달청장 등 정관계 인사 및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관련단체장 등 건설관련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표방해온 만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시행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등 공공건설 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와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건설·부동산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계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건설산업

업계소식



▲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계인사와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인들과 교류를 가진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


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으로 해외건설사상 최대규모인 398억 달러를 수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준 건설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복구 등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인 여러분께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성실시

공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산업을 만드는 데 주력해주길 바라며 정부도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오명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인들의 건승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이후 이어진 다과회에서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과 홍평우·정승일 명예회장은 정·관계 인사 및 건설관련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며 새해 더 나은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업계소식

기계설비협의회 2008 신년인사회 개최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4일 개최한 기계설비협의회 2008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계설비협의회 회원들과 기계설비업계 발전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졌다.

기계 설비협의회(회장 이완근)는 지난 1월 4일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0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완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분야는 정적인 건물에 동적인 기능을 부여해 건축물 기능을 결

정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현대는 건축물의 원활한 기능 발휘 및 더 정밀한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년간 기계설비분야가 어려움을 겪었

업계소식




▲ 우광현 (주)화인메컨 대표이사가 기계설비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패를 받았다.

으나 올해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우리 기계설비인들도 더욱 노력하여 상생발전하는 한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단배식과 케익절단식을 통해 2008년 한해 동안 기계설비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춘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석고문이 공로상을, 우광현 (주)화인메컨 대표이사, 이상춘 (주)대우건설 건축본부 상무, 류진상 (주)월드에너지 대표이

사, 남임우 (주)신성엔지니어링 공조사업본부 전무이사가 포상패를 받았다.

지난 86년 기계설비분야의 당면과제 개선과 상호협력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계설비협의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중학)를 비롯한 대한설비공학회(회장 오후규), 한국냉동공조협회(회장 이완근),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이민우),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회장 김선하)의 5개 단체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가스시공업계 소식

가스공사 불법 하도급 방지 안내

일반 건설사가 가스공사를 하도급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4항에 의거,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직접 계약해야 하나 일부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종에 통합계약을 통한 불법 재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전국 회원사에게 가스공사를 하도급할 때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에게 직접 하도급 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및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6월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건설법 제82조제2항2호) 또는 재하도급 받은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벌칙 규정이 있다. ●

협회안내

윈도우비스타 인터넷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대한 설비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서발급시스템”의 제증명 솔루션은 2007년 2월에 출시된 “윈도우비스타”제품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운영체제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윈도우비스타에 대한 제증명 솔루션 업그레이드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